

## 자도르노프 작품 속에 나타난 러시아 유머의 의미구조

안병팔  
(서경대학교)

### 1. 서론

지금까지 러시아 유머 연구에서는 의미구조에 관한 분석보다는 유머를 이루는 세부적인 유형들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뤘다(Исаева 1996; Задорнов 1991; 1992). 조웬코의 작품을 분석한 크레프스(Kreps 1981)에서는 조웬코(М.З ошенко) 텍스트에 나타난 유머의 형태를 유머렘(humore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21가지 유형으로 나타낸 바 있었다(Kreps 1981, 36-87). 이러한 유형들은 어떠한 언어학적 기준을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전통적인 문학에서의 수사 비유의 방법과 같은 차원에서 유머의 케이스를 수집한 것이었다. 크레프스의 유머의 유형은 ‘모순(contradiction)’, ‘반의어 대치(antonymic substitution)’, ‘마카로니 스피치(macaronic speech)’ 등을 포함하여 ‘유머렘의 상관관계(correlation of humoremes)’에 이르는 유머의 기본 유형<sup>1)</sup>을 열거하고 있다. 이런 식의 유머의 개별적 케이스를 정리한 것은 마나코프(Манаков 1986, 61-79)

---

【Keywords】 Russian humor, semantic structure, incongruity, negation of presupposition, pragmatics

- 1) 이들 유머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모순(contradiction), 반의어대치(antonymic substitution), 마카로니 스피치(macaronic speech), 일반화(generalization), 과장(hyperbole), 문체적 규범일탈, 의미적 반복(semantic reduplication), 어근 반복(root reduplication), 관용어의 해체(split idiom), 모순 자질(incongruous qualification), 해석오류(false interpretation), 말에프로피즘(malapropism), 민간어원, 유사계열어 대치(substitution by contiguity), 인용어(reported speech), 동의어반복(synonymic reduplication), 우연성의 어휘(occasionalism), 관용어의 혼합(contamination of idoms), 실체의 충돌(clash of realities), 부조화의 나열(incongruous grouping), 유머렘의 상관관계(correlation) 등.

에서도 볼 수 있다. 마나코프는 고골, 체홉 등을 비롯한 많은 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언어적 유머를 이루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들로는 의미전이(тропы), 형용어구(эпитет), 액어법(зевгма), 희극적 비유(комические сравнения), 희극적 은유(комическая метафора), 희극적 바깥쓰기(комические перифразы), 단어의 교체(евфемизмы), 결말(каламбуры), 희극적 지명(комические топонимы), 희극적 고유명사(комическая оноματοлогия), 희극적 의성어(комическая ономотопея), 외래어, 민간어원, 방언, 속어, 구어체, 풍자어 만들기(острословие) 등의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어떠한 의미론적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었다. 특별히 그러한 방법들이 왜 우수한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시도가 안병팔(1997a; b)에 의해 제기되었다. 안병팔(1997a; b)에서는 웃음의 맥락을 위기해소 이론(release theory)과 우월감 이론(superiority theory), 부조화모순 이론(incongruity theory)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다. 형태-통사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와 어휘적인 방법을 통해서 규범을 일탈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유머 텍스트의 구조를 의미론적 형식을 갖춰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유머형성의 표피구조인 여러 가지 수단들에 대한 언어학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유머의 골격을 이루는 심층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유머의 생성이나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유머의 구조를 부조화모순이라고 보는 견해에 동의하면서 그 의미구조가 전제 부정임을 보이려고 하였다. 물론 대립적 구조로서 유머파악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의미적 변별자질로서의 설명은 없었다. 자도르노프 유머작품을 통해서 의미적 전제가 되는 자질이 부정되면서 대립되는 구조의 의미자질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론, 화용론, 통사론, 어휘의미론 차원의 분석을 통하여 보이고 있다.

## 2. 유머이론에 대한 검토

유머의 맥락에 관한 이론은 고대의 플라톤(Plato)이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로부터 현대까지 다양하다(Attardo 1994). 그런 이론들은 대체로 세 가지 중 하나의 입장에 서있다. 심리학적인 이론, 사회학적인 이론, 인지론적(cognitive)인 이론이 그것이다.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유머를 보는 이론은 위기해소이론(release theory), 승화이론(sublimation theory), 해방이론(liberation theory) 등이다. 정신분석학이나 의학적인 입장에서 유머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프로이드(Freud 1905)의 유머에 대한 입장이 바로 이것으로서 예측되었던 긴장 상황이 별 것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웃음을 통해 그 긴장을 푸는 메카니즘이 유머라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유머를 치료나 기분전환의 활력소로 보는 의학적 연구의 출발이 되고 있다(Freud 1905; Keith-Spiegel 1972, 10-13; Morreal 1983, 20-37).

또 다른 이론은 사회학적 측면에서 유머를 보는 입장이다. 우월감이론(superiority theory), 공격이론(aggression theory), 적대이론(hostility theory), 승리이론(triumph theory), 조롱이론, 경멸이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머가 드러나지 않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사회적 교정수단(social corrective)이라고 하는 Bergson(1901)의 생각도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홉스(Hobbes T.)가 유머를 보는 관점도 바로 이런 관점이었다(Morreal 1983, 4-14, Attardo 1994, 49). 이것은 웃음의 대상이 되는 개인, 집단, 인종 혹은 다른 여러 범주의 존재보다 자기가 우월감을 느낄 때 유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론은 인지론적 측면에서 유머를 보는 입장으로서 칸트<sup>2)</sup>, 쇼펜하우어<sup>3)</sup>, McGhee(1979)<sup>4)</sup> 등의 정의에 근거하는 이 이론은 유머의 심리학적 효

2) 부조화모순으로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웃음을 정의하고 있다. 'Laughter is an affection arising from sudden transformation of a strained expectation into nothing'(Morreal 1987, 47)

3) 쇼펜하우어는 웃음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The cause of laughter in every

과나 사회학적 기능보다는 유머 자체의 논리적 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유머를 접근하는 견해이다. 부조화모순이론(incongruity theory)과 대조이론(contrast theory)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로 어울리지 않거나 모순되는 두 가지 이미지, 생각 혹은 사건이 기대치 않게 함께 나타나게 되었을 때 유머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Bergson(1901)이 유머를 자연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이 대립하는 구조에서 기계적인 것을 유머라고 보았던 것도 부조화 모순의 입장에서 유머를 바라본 것이었다.

그러나 유머는 삼위일체(三位一體)<sup>5)</sup>처럼, 세 개의 이론적 입장에서 각기 다르게 유머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 가지 실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 이론들의 정의는 유머에 존재하고 있는 세 측면을 각각 다른 방향에서 바라다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측면은 유머의 핵심적 요소로서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유머라고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 그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는 유머를 완벽하게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삼위일체와 같은 것이다. 그만큼 유머라는 현상은 심리학, 사회학, 인지언어학 등 세 개의 학문분야에서 인간의 언어와 관련된 복합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측면의 이론들 중에서 언어학에서 의미론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이론은 부조화모순이론이다. 이 이론은 바로 의미와 논리를 다루는 것이어서 언어학적으로 접근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부조화모순이론에 근거해서 형식적 체계의 모습을 갖춘 이론들로서 이중연상이론(bisociation theory), 의미론적 스크립트이론(SSTH: semantic script theory of humor)과 언어유머일반이론(GTVH: general theory of verbal theory)<sup>6)</sup> 등이 대두되었다.

---

case is simply the sudden perception of the incongruity between a concept and the real objects which have been thought through it in some relation, and laughter itself is just the expression of this incongruity'(Morreal 1987, 52)

- 4) 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 notion of congruity and incongruity refer to the relationships between components of an object, event, idea, social expectation, and so forth. When the arrangement of the constituent elements of an events is incompatible with the normal or expected pattern, the event is perceived as incongruous.(McGhee 1979, 6-7).
- 5) 기독교에서 삼위일체(trinity)는 성부(聖父)와 성자(聖子), 성신(聖神)을 동일한 신격으로 여기는 것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일체로 본다(새 우리말 큰 사전)..

의미론적 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중연상이론을 쾨슬러(Koestler 1964, 35)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중연상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습관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지시 프레임이 하나의 상황이나 사고로 인지되어지는 것이다. 두 가지의 지시프레임이 상호간섭하는 사건은 상이한 두 파장을 가진 파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하나의 연상 맥락에 연결되지 않고 양 지시프레임에 동시에 연결이 된다(koestler 1964, 35).

이중연상이론은 부조화와 모순을 포함하는 유머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성 현상을 하나로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잡다한 유머형태<sup>8)</sup>를 쾨슬러

- 
- 6) SSTH이론과 GTVH이론은 둘다 스크립트의 중복과 대립에 근거를 둔 이론이다. SSTH이론의 확대수정이론으로 등장한 GTVH이론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다른 유머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GTVH이론은 KR(knowledge resources)이라는 6개의 유머 패러미터(parameters of joke differences)를 가지고 있다. LA(언어) -- NS(담화전략) -- TA(유머의 대상) -- SI(상황) -- LM(논리기제) -- SO(스크립트대립). 이 패러미터를 무시하고 스크립트의 대립(SO)만으로 모든 유머를 설명하는 것이 SSTH이론이다. GTVH는 유머의 형성에서 가장 기저부에서 위치하는 것이 스크립트의 대립이고 그 다음이 논리구조, 유머의 상황, 유머의 대상, 담화전략 그리고 표면구조에서 언어적 조작, 패러프레이즈(Paraphrases)등이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GTVH의 장점은 스크립트의 대립과 논리구조는 동일하지만 그 사용언어나 기술방법이 색다른 유머들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효과적이다(Attardo & Raskin 1991, 325).
- 7) 이러한 이중연상에 근거하여 의미론적인 후속 연구가 있었다. 그 중에 화용론적인 시도로 Eco(1981;1986)가 주목되며 대화격률(Grice 1975) 위반을 유머생성의 방법으로 제시한바 있다.
- “Excuse me, do you know what time is it?”  
 “Yes.”(Eco 1986, 273) (양의 격률 위반: “요구되는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라”) 여기에서는 지식의 유무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제 부정이 유머를 형성하고 있다. Eco(1986)의 화용론적 접근은 본 논문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방법과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중의성’이 유머를 생성한다는 설명만을 하고 있다(Eco 1986, 273).
- 8) (a) 정상적 사건 순서의 위반 (b) 정상적 사건의 금지된 위반 (c) 음담패설(예의를 차리는 분위기에서 금지된 주제의 언급) (d) 다른 상황에 속한 것을 특정상황에 삽입하기 (e) 말장난, 퍼닝(Punning) (f) 넌센스 등.(Kreps 1981, 17)

(Koestler)는 이중연상(bisociation)이라는 하나의 단일 과정으로 축소하였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1) 후작은 자신의 아내 방에서 아내를 껴안고 있는 신부를 보더니 조용히 창가로 가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동작을 하면서 지나갔다. 화가 난 아내가 지금 뭐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다. “주교님이 내 역할을 하고 있어서 나도 주교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말했다.

... tells a story of a Marquis at the court of Louis XIV who, on entering his wife's boudoir and finding her in the arms of a Bishop, walked calmly to the window and went through the motions of blessing the people in the street.

‘What are you doing?’ cried the anguished wife.

‘Monseigneur is performing my functions,’ replied the Marquis, ‘so I am performing his.’(Kreps 1981, 17-18)

괴슬러에 의하면 유머(1)은 보통 상식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후작의 행위’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 사제를 목격한 후작(Marquis)이 분노 대신에 사제와 역할을 바꿔서 행한 축도행위는 예상치 않은 것이지만 나름대로 논리가 서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이 아니다. 독자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후작이 행동을 한 것이다. 여기에서 상호 존립할 수 없는 두 코드의 충돌, 즉 상식적인 코드와 비상식적인 코드, 또는 웃음을 야기하는 연상적인 맥락이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괴슬러는 두 코드의 교차점을 접합부(junction)라고 부르고 있다. 유머의 성질은 두 코드사이의 접합부 특성에 좌우된다. 접합부는 두 개의 독립된 사고부분의 연결부가 된다. 보통의 경우에 의식의 흐름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한편을 따르게 되어있다. 두 사고는 상이한 지적 시스템(mental system)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접합부 개념은 비정상적 방법으로 행동하게 된다. 그것은 어느 한 맥락에 연상되는 게 아니다. 두 개의 독립적이며 상호 배타적인 지적 영역에서 이중연상(bi-sociated)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서 괴슬러는

이중연상(bisocia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중연상은 보통 관습대로라면 양립이 불가능한 맥락이 동시에 연상되는 지적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발전시켜서 궤슬러는 두 개의 병립 불가능 맥락이 하나의 사고나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이중 연상되는 경우, 희극적 효과를 창출해 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에서 말하는 습관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지시 프레임이라는 것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위의 경우에 예상 할 수 있는 행동과 예상할 수 없는 행동이 무엇인지가 애매하다. 왜 존립이 불가능한지, 어떠한 경우에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대립과 병립이 공존하는 현상은 스크립트이론에서도 설명되고 있다. SSTH 이론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어떤 텍스트가 아래 두 조건을 만족하면 최소한 하나 이상의 유머를 포함한 텍스트로 간주될 수 있다. 1) 텍스트에서 두 개의 상호 다른 스크립트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병립관계에 있어야 한다, 2) 병립관계에 있는 두 개의 스크립트는 상호 대립되어야 한다. 두 개의 스크립트는 텍스트 속에서 언급되어야 한다(Raskin 1985, 99).

이 가정에 의하면 텍스트 속에서 스크립트가 병립(compatible)되면서 동시에 대립(opposite) 되면 그 텍스트는 유머텍스트가 된다는 것이다. 라스킨은 스크립트의 예를 의사부인(Doctor's wife)이라는 유머를 통해서 설명하였다.

2) "Is the doctor at home?" the patient asked in his bronchial whisper.

"No", the doctor's young and pretty wife whispered in reply. "Come right in."

유머2)를 3단계로 분석하고 있다.

제 1단계는 어휘분석으로서 is, at라는 어휘를 통해서 장소에 대한 스크립트, 그리고 의사라는 스크립트(Doctor script)가 형성된다.

제 2단계는 병렬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 조합하는 조합규칙 (combination rules)이 작용한다.

제 3단계는 추론의 단계로서 텍스트를 해석한다.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라는 기관지염 증세가 있는 환자의 속삭이는 듯한 질문과 “안 계세요”라는 젊고 아름다운 의사부인의 대답에 이어 안으로 들어오라는 요청을 통해서 애인 스크립트(Lover script)의 관점에서 의사부인의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말’이 되기 시작한다.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바람피우는 의사부인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두 개의 스크립트로서 의사(Doctor)와 애인(Lover)이 대립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스크립트는 sex/ no sex의 기저(basis)로 대립되어 있고 이것이 SSTH의 요구를 만족함으로 우스운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다(Attardo 1994, 207).

라스킨은 다음과 같이 ‘Doctor’에 해당하는 어휘적 스크립트의 실례를 보이고 있다. 스크립트는 인지대상 속에 존재하는 조직적 정보의 집합체(organized chunk of information)로서 화자에 의해서 내재화된 다음 구조를 가진다.

#### Doctor의 어휘적 스크립트

Subject: [+Human], [+Adult]

Activity: > Study medicine

=Receive patients, Patient come or doctor visits,

Doctor listens to complaints,

Doctor examines patients

=Cure disease; Doctor diagnoses disease

Doctor prescribes treatment

=(Take patient's money)

Place: >Medical school

=Hospital or doctor's office

Time: > Many years

= Every day

=Immediately



Condition: Physical contact

> in the past

= in the present(Raskin 1985, 85)

이와 같이 형성된 스크립트가 중첩(overlapping)되는 것만으로는 유머텍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다. 두 개의 스크립트가 병립된 경우는 유머 이외에도 은유(metaphor), 우화(allegory), 상징(figurative), 신화(myth), 암시(allusive)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첩되면서 서로 대립한다는 점에서 유머와 다른 스크립트의 중첩은 구별이 된다. 따라서 두 개의 스크립트가 중첩되었다고 해서 유머 텍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스킨은 가능한 스크립트의 대립은 실제(real situation)와 비실제(unreal situation)의 대립으로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1) 사실적(actual) vs. 비사실적(non-actual) 2) 정상(normal) vs. 비정상(abnormal) 3) 가능(possible) vs. 불가능(impossible).

그리고 인간 생활에서 핵심적이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대립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선/악, 생/사, 외설(obscene)/비외설(non-obscene), 돈/非돈, 고/저, 배설/非배설(excrement/non-excrement).

그러나 여기에서 스크립트를 결정하는 것은 용이한 것이 아니다. Doctor와 Lover를 대립하는 스크립트라고 규정하는 데에 분명한 근거가 없다. 왜 Doctor와 Lover가 대립한다고 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다. Doctor's wife에서 대립되는 스크립트를 Doctor와 Lover가 아닌 Patient와 Lover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스크립트의 기저(base)를 sex/no sex로 보는 것도 명백한 기준

9) 스크립트의 병립과 대립을 고려하면 유머와 구별되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가 가능하다.

스크립트	대립(opposed)	비(非)대립
중첩 (overlapping)	유머(humor)	은유, 우화(allegory), 상징(figurative), 신화, 암시
비(非)병립	논쟁(비극)	평범한 기술(plain narrative)

이 없다. normal/abnormal로 보지 말라는 근거가 있겠는가? 현재와 같은 Raskin의 설명에서는 이에 대한 대답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스크립트의 개념인 ‘인지대상 속에 존재하는 조직적 정보의 집합체(organized chunk of informations)’라는 것도 애매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자의적인 성질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저 이중연상이론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대충 어떤 다른 두 이미지가 각기 다른 파형을 가지고 이원적으로 존재한다는 설명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스크립트이론과 이중연상이론의 불명료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미론에서 사용되는 명제의 전제개념(presupposition)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명제논리(propositional logic)의 진리조건은 ‘모든 문장은 참이든가 거짓이든가 둘 중의 하나이지, 동시에 참과 거짓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심재기 외 1985, 81). 이러한 명제논리를 위반하여 참과 거짓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문장뿐만 아니라 문장 이하의 어결합(сл овосочетание)이나 문장 이상의 텍스트에서 생성되는 유머의 구조를 가정할 수 있다.

한 발화 내에서 명제가 전제하고 있는 의미요소를 같은 발화 내에서 부정하는 경우에 유머가 발생한다. 이때 명제의 내용 속에 포함된 의미의 변별적 자질이 두 명제의 대립된 전제를 규정하는 의미적 기준이 된다. Doctor's wife 스토리에서 전반부의 전제(presupposition)는 환자(patient)가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환자라는 것이다. ‘No’라는 부인의 대답이 있을 때에도 전제는 부정되지 않고 유효하다. 그러나 ‘come right in !’이라는 부인의 초청에서 이런 전제는 급격히 부정된다. 전제의 변별적 의미요소는 [patient]라는 것이다. 전반부의 환자의 의미 성분은 [+patient]가 된다. 여기서 환자는 정말 치료를 받으러 의사를 찾아온 순수한 환자임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patient]의 의미 자질을 가진다. [-patient]는 순수한 의미의 환자가 아니라 젊고 아름다운 의사 부인과 바람을 피우러 온 가짜환자로서 치료와는 상관이 없는 [-patient] 자질을 가진 것이다. 이 텍스트에서는 전제가 [+patient]/[-patient]자질에서 대립하는 구조를 가진다. Doctor's wife 스토리에서 전반부의 patient라는 말 대신에

동일인을 지시하는 the lover of doctor's wife라는 말을 넣어서 유머 성질을 분석해보자.

2') "Is the doctor at home?" the lover of doctor's wife asked in his bronchial whisper.

"No", the doctor's young and pretty wife whispered in reply. "Come right in."

2')에서 전반부의 화자는 의사부인의 정부(情夫)임을 전제하게 된다. 이후 이 화자에 대한 정체에서의 전제는 끝까지 부정되지 않게 된다. 이 경우의 텍스트는 전혀 우습지 않은 긴장된 대화로서 지속하게 된다. 전제가 부정되지 않은, 즉 명제논리의 진리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정상적인 논리를 가진 문장이기 때문이다.

명제전제부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있다.

i) 임의의 의미를 가지는 결합된 언어단위에서 결합에 참여하는 한 요소가 그 전체 명제의 전제(presupposition)를 부정하면 이 언어단위는 유머의 속성을 가진다.

ii) 명제의 전제는 의미적 변별자질을 통해서 대립되어진다.

### 3. 자료의 분석

#### 3.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이러한 명제전제의 부정이 유머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구조의 핵심임을 보이기 위해서 러시아의 유머작품을 의미론, 화용론, 통사론, 어휘의미론의 차원에서 분석하여 유머가 실현되는 의미적 양상을 분석하였다.

러시아 유머작품들 중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자도르노프(Задорнов, М.)의 작품을 자료로 분석하였다. 이 자료들은 모두 5권이다. 첫째 작품 자도르노프

(1988)는 ‘푸른 위성의 수수께끼(Загадка голубой планеты. Не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라는 제목으로 신문풍자(фельетон) 형식으로 된 유머를 주종으로 하는 시대풍자적 유머 텍스트이다. 두 번째 자도르노프(1996)는 ‘어린이의 외투(Кофточка)’라는 희극작품으로 1996년 체첸전쟁의 원인과 과정, 결말을 러시아에 거주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신(新)러시아인, 비즈니스맨, 전직KGB직원, 전직경찰, 마피아, 정교의 사제, 유대인, 카프카즈인, 발틱외교관, 미국CIA조직)을 통해서 풍자적으로 묘사하는 유머로 채워져 있다. 세 번째 작품 자도르노프(1997a)는 ‘예측할 수 없는 과거를 가진 강대국(Великая страна с непредсказуемым прошлым)’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으로서 1977년부터 1991년도까지 당시 소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 그리고 러시아인의 의식에 대해 연도별로 풍자적 비평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안병팔(1997a)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형태-통사론적 수단을 사용한 단어비틀기(игра слов)의 유머가 비교적 풍부하다. 네 번째 작품 자도르노프(1997b)는 ‘자도르니키(Задорники)’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소련시절부터 1997년 현재까지의 러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 경구, 아네크도트, 경구표현(крылатые выражения), 구호, 단어풀이 수수께끼 등의 형식을 빌어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 작품 자도르노프(1997c)는 ‘우리는 모두 차차피 출신이다(Мы все из [Чи-Чи-Чи-Пи])’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으로서 1991년 쿠데타 사건 이후 1997년까지 러시아인의 의식과 생활상, 개혁의 허와 실, 새로운 체제로의 변환에 관련한 각가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의 문제들을 망라하여 웃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솔직한 풍자들로 채워져 있다. 이 작품은 자도르노프(1997a)와 같은 성격을 가지며 시대적으로 쿠데타 이후의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형태-통사론적 수단을 이용한 단어비틀기가 많이 줄어들고 다른 의미-논리적 유머의 성격이 강하다.

### 3.2. 유머분석방법

유머의 편차라인에 대해서는 모국어화자 6명<sup>10)</sup>으로 하여금 검증하도록 하

였다. 이러한 검증된 펀치라인을 중심으로 의미적 전제의 부정이 실현되는 것을 각 영역별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유머의 주제나 강도(強度)나 대상(target of humor)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 3.3. 의미론적 유머의 분석

의미론은 유머형성 과정의 기저부에 존재하며 기능을 한다. 의미를 떠나서는 유머 발생이 불가능하다. 유머는 논리적 대응이 불가능한 특별한 의미구조 발화형태로서, 오직 웃음으로만 대응이 가능하다. 유머의 핵심적 의미구조는 전제(presupposition)가 부정되는 구조이다. 발화나 텍스트 속에서 주어진 명제의 기본전제를 부정함으로써 또 다른 전제가 발생하여 서로 모순과 부조화를 유발하게 된다. 이런 전제 부정은 의미론적으로 명제논리(propositional logic)의 진리조건(truth condition)인 이치율(the law of bivalence)과 모순율(the law of contradiction)을 위반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치율에 따라서 문장의 진리치는 참과 거짓 둘 뿐이므로 문장은 참이거나 거짓이 되어야 하고 모순율을 따를 때 문장이 동시에 참과 거짓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 부조화모순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조화나 모순이란 것은 바로 전제에 대한 부정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가령,

3) 나는 김 군이 미쳤다고 믿지 않지만 나는 그가 미쳤음을 안다(심재기의 1984, 108).

전반부

후반부

예문3)의 후반부 ‘나는 그가 미쳤음을 안다’라고 단언(assertion)하는 것은 ‘그가 미쳤다’는 것과 또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게 된

10) 이를 위해 수고해준 하바로프스크 공과대학 테라첸코 류드밀라 교수와 블라토바 안나, 코바코프 블라디斯拉프, 김 알료나양, 콤소몰스크 공대 미르가주디노프 막심 군, 서경대 호홀로바 올가 교수에게 사의를 표한다.

다. 이것은 전반부의 전제인 미쳤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즉 사실을 알면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조건에 위배된다<sup>11)</sup>. 이런 논리의 진리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정상적인 논리적 해석은 불가하게 된다.

이제 러시아 유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전제부정의 경우를 살펴보자.

4) 내 새 남편알아? 모른다고? 웬일이야? 수퍼급야! 키는 164센티미터이고! 명령한 사람이야... 우리가 걸어가면 사람들이 모두 쳐다본다.

Кстати, ты моего нового знаешь? Нет? Ну что ты? Супер! Рост 1.64! А ласковый ... Когда мы с ним по улице идёт, все оборачиваются. (Задорнов 1997с, 120)

4)에서 신(新)러시아인 여자가 새 남편을 자랑하면서 수퍼급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수퍼’라는 전제가 키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된다. 키가 1m 64cm의 단신이고 남편과 길을 걸어가 갈 때 사람들이 온통 자신을 주목한다고 한 표현에서 [+large]의 전제가 [-large]로 부정된다. [+large]와 [-large]의 전제가 대립하고 있다.

5) ...다음에 나는 귀금속상을 하게 되었어. 일급 귀금속상이 되었지. 내 짧은 금목걸이 보이지? 내 작품이야. 집에서 우리 아기도 이런 걸 차고 달려 다닌다. 작은 애는 이제 여섯 달되었어. 강보 속에 기저귀를 차고 콧물에 젖어 있지만 금목걸이를 차고 있지.

-Не, я после Рыбного пошёл работать ювелиром. Я ж всегда классным ювелиром был. Ты чё? Цепь видишь на шее? Моя работа... Детишки дома в так их же бегают. Младшему шесть месяцев. Он -- в кровати, пелёнках, и соплях и цепях... Понял?

-Нет, не понял. Я давно уже из Союза. Ты что, на медицинскую конференцию при-ехал как ювелир?(Задорнов 1997с, 150)

11) 의미론에서 말하는 전제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이익환(1995, 229-282)을 참조하라.

5)에서 귀금속 세공기사의 아들이 굵은 금목걸이를 차고 자랑스럽게 논다라는 전제와 이제 6개월짜리 아기가 강보에 싸여 기저귀를 차고 있으며 콧물에 젖어 있다는 것은 서로 대립된다. 귀금속 사치품을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의 의미론적 전제는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젖먹이 아기가 가지는 의미적 함축에 의해 부정된다. 사치품 목걸이 주인이라는 [+멋쟁이]자질과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다니는 젖먹이 [-멋쟁이]의 자질이 대립된다.

6) 사제(큰 소리로): 선한 사람들이여, 깨달으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피켓 든 사람들: 사제가 무슨 말하는지 들었지?:[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앞으로 가자!]

Батюшка(зычным голосом) : Образу́йтесь, люди добрые! Господь с вами!

Тот, который с доской : Вы слышали, что батюшка сказал: [Господь с нами! Вперёд!](Задорнов 1996, 52)

(6)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사제가 달래면서 그저 습관적으로 기원한 말인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Господь с вами!)’라는 말을 들은 싸움꾼이 이 말을 인용하면서 싸움을 선동한다. ‘들었지? 사제님이 한말을?’ 하면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Господь с нами)’ 그러나 싸우러 가자고 충동을 한다. 사제가 말한 바램의 의미론적 전제가 인용과정에서 부정되면서 [+바램] 자질이 [-바램]의 자질로 대립된다.

7) ...나는 오래동안 런던을 동경했어. 에펠탑을 참 보고 싶었어! 뭐? 에펠탑이 런던에 있다고? 그럼 어디에? 로마에 있나? 그래 맞아!...

Анжела, я чего тебе звоню...Я же завтра -- в Лондон<sup>12)</sup>. Со своим. Нет, мой занят, поэтому со своим лечу. Знаешь, я давно о Лондоне мечтала. Так хочется на Эйфелеву башню посмотреть! Что? Эйфелева не в Лондоне? А где? В Риме? Точно! Её ж древние греки построили. Она у них раньше работа

---

12) 신러시아인은 자신의 외국지향적 교양을 과시하기 위해 해외여행에 돈을 허비하는 풍조가 있다.

*ла маяком.* (Задорнов 1997с, 120)

7)에서 오랫동안 런던을 동경해 왔다는 의미론적 전제가 *Так хочется на Эйфелеву башню посмотреть!*라는 표현에 의해서 부정되어진다. ‘오랫동안 런던을 동경한 이유가 에펠탑을 보려고 했다고 하는데서, 에펠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국제적 감각을 갖춘 교양인이라는 전제의 자질 [+국제적 감각의 교양인]이 그대로 [-국제적 감각의 교양인] 자질에 의해서 대립된다. 에펠탑은 로마에 있다고 주장하는 여자 친구가 전체 자질의 부정을 강화시키고 있다.

8) 어떤 여자가 전화기 수리센터에 와서 자기 방을 돌아다니며 전화할 수 있도록 전화선을 늘려 달라고 했다. 다음날 전화기를 찾으러 그 곳에 가보니 전화기와 수화기 사이에 10m 짜리 선을 연결시켜놓았다...

*Женщина принесла в мастерскую телефон и попросила удлинить шнур, чтобы она могла ходить с телефоном по комнате. Пришла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в мастерскую забрать телефон. Смотрит, а ей поставили десятиметровый шнур между телефоном и трубкой.*(Задорнов 1997b, 177)

8)에서 한 여자가 전화기 수리센터에 가서 방안에서 자유롭게 전화를 옮기면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선을 늘려 달라고 부탁했다. 이튿날 수리센터에 가보니 전화기와 수화기를 연결하는 선이 10미터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여자가 부탁한 것은 전화기와 콘센트까지 전화선을 연장해 달라는 것을 전제한 것이었다. 그런데 수리센터 기사의 조치는 이런 전제를 부정한 것이다. [+ (전화기와 콘센트사이의 연장)]의 전제를 [- (전화기와 콘센트사이의 연장)]의 자질로 대립시키고 있다.

전제(presupposition)는 한 문장이 발화되었을 때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축의미(implication)를 포함한다. 만일 이 함축 의미가 의미론적 속성, 명제 내용, 혹은 논리형태 등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면 의미론적 전제개념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 함축의미가 맥락, 대화요인, 화자의 배경



지식 등에 연유되어 일어나는 것이면 다음 논의에서와 같이 화용론적으로 설명된다.

### 3.4. 화용론적 유머의 분석

전제(presupposition)를 화용론적으로 보려는 입장(Searle 1969, 54-71; Grice 1975, 41-59)<sup>13)</sup>은 전제를 논리적 관계에서 보지 않고 대화 맥락에서 문장이 적절하게 사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Searle(1969, 54-71)은 화용론적 ‘적정조건’(felicity condition)을 ‘예비조건’(preparatory condition), ‘진지성조건’(sincerity condition), ‘본질조건’(essential condition)으로 나누고 있다.

어떤 문장의 발화가 특정한 언표내적 행위(illocutionary act)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가지 적정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예비조건’으로 화자나 청자가 그 언표내적 행위와 관련해 배경적으로 갖는 가정들이 있고, ‘진지성 조건’으로 화자가 그 언표내적 행위에 따르는 진실된 마음가짐으로 말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또한 ‘본질조건’으로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본래 취지의 행위가 되어야 함을 따지는 조건 등이 있다.

9) I promise to give you a failing grade in the course.(But you don't want my promise to be fulfilled.)

10) I promise to buy a car.(But I don't have the intention to do.)

11) I promise to buy you a car.(But I am not under the obligation.)

9)는 Searle(1969, 54-71)이 말하는 ‘예비조건’이, 10)은 ‘진지성조건’이, 그리고 11)는 ‘본질조건’이 어겨진 경우로서 모두 대화상 ‘적정조건’을 위반하면서 화용론적 모순성을 야기하고 있다. 약속의 경우 ‘예비조건’은 약속되는 것은

13) Grice(1975, 41-59)의 대화격률에 근거한 입장은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고 차후 연구로 미룬다.

청자가 이뤄지기를 원하는 것, 청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나타낸다. ‘진지성 조건’은 약속의 경우 화자가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질조건’은 약속의 경우 화자가 약속에 대해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약속의 언표내적 행위에서 이 세 가지 ‘적정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대화상 모순을 일으키지 않고 적정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용론에서 이와 같은 전제는 모든 언표내적 행위, 즉 명령, 약속, 선언, 질문, 제의, 충고, 경고, 축하, 사과 등에서 각각 적용될 수 있다(심재기, 이기용, 이정민 1984, 155-160; 이익환 1995, 245-246).

다음 러시아 유머에서 화용론적인 전제로서 ‘적정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12) 라트비아 급진주의자가 터키 세관에서 물었다. 세관신고서를 러시아어로 써야하나요?(신고서는 영어와 러시아어로 된 것이 있었다) 터키 사람이 말했다. 원하는 언어로 쓰세요. 그는 라트비아어로 썼다. 영어는 모르고 러시아어로는 쓰기 싫어서였다. 터키인이 보더니 물었다. 이게 어떤 말이지요? 그가 라트비아어라고 대답했다. 터키인이 알았다고 하면서 번역비로 500달러를 내라고 했다.

Латвийский радикал на границе при мне спрашивает у турецкого таможенника: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заполнять декларацию?](Бланки на рус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Турок ему говорит: [На каком хотите, пожалуйста]. Радикал заполнил на латвийском, потому что русский ему противен, а английского он не знает. Т урок посмотрел и говорит: [Это что за язык такой?] Тот отвечает: [Латвийский]. Турок говорит: [Понятно. Платите пятьсот долларов за перевод]. (Задорнов 1997b)

12)에서 언표내적 행위가 충고의 경우에 ‘적정조건’을 부정하는 표현과 함께 쓰일 때 화용론적인 모순성이 야기된다. 충고의 경우 ‘예비조건’은 화자가 장차 청자의 행위가 청자에게 이롭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진지성조건’은 화자가 청자의 그 행위가 청자에게 이롭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본질조건’은 충고행위를 행하는 청자의 장차 행위가 청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됨을 알려주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경우 세관신고서를 쓰는 비용은 당연히 무료인데 번역료를 500달러나 내야될 수도 있음을 알면서 임의의 언어로 작성하라고 충고한 것은 ‘진지성조건’을 위반한 것이된다. 화용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자질은 [+무료]이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500달러를 요구하면서 청자에게 불리하게 부정되고 있다. [+무료]와 [-무료]의 자질이 대립되고 있다.

- 13) -- 난 당신을 사랑해요.  
 --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걸고 맹세하세요.  
 -- 나의 아내와 아이들을 걸고 맹세해요.  
 -- Я люблю тебя, дорогая!  
 -- Клянись самым дорогим, что у тебя есть!  
 -- Клянись собственной женой и детьми! (Задорнов 1997b)

13)에서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사랑을 맹세(약속)하는 경우에 화자는 자신의 맹세가 청자에게 이롭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예비조건). 그런데 가장 귀중한 것으로서 자기 본처와 친자식들을 걸고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맹세한다는 것은 화자 스스로 화자의 맹세가 청자에게 유익이 된다고 믿지 않고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진지성조건을 위반하고 있다. 이러한 화용론적인 전제를 부정하면서 [+맹세]와 [-맹세]의 자질이 대립하고 있다. 즉 맹세인 것 같으면서도 맹세가 아닌 전제가 대립하고 있다.

### 3.5. 통사적인 유머 분석

의미론적 전제의 부정과 화용론적인 적정규정을 위배하는 것 외에도 통사론적인 문법규칙을 위배함으로써도 의미론적인 전제를 부정하게 된다. 문법규칙에 어긋나면서도 훌륭한 의미를 가지는 은유(metaphor)를 분석하기 위한 시도로서 Chomsky(1965)는 문법규칙의 위배에 따른 비정상성(deviance)을 정

도에 따라 가르고 있다. 문법 기층부(base component)의 문맥 하위범주화 규칙을 엄밀하위범주화규칙(strict subcategorization rule)과 선택규칙(selectional rule)으로 나누는데 전자는 어휘범주(N,V 등)를 담는 범주기호들의 국부적인 틀([+\_NP] 또는 [+Det\_] 등)로 하위범주화시키고 있다. 후자는 어휘범주를 문장내의 명시된 위치에 나타내는 공기(共起)관계를 보이는 통사자질들([+\_Human]\_[+N] 등)로 하위범주화시킨다. 이에 따라 세가지 이탈의 유형을 i)어휘범주의 위배, ii)엄밀하위범주화 자질의 차질, iii)선택자질의 차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 순서가 비정상성의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다.

14) Sincerety may virtue the boy.

[+N]

15) Sincerety may elapse the boy.

[+Vi]

16) Sincerety may admire the boy.

[+\_Animate]\_\_]

여기서 세 번째 유형, 즉 16)과 같은 선택자질 차질에 의한 비정상성은 은유적 표현으로 해석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pretty boy에서 [+남성]인 boy와 [-남성]인 pretty의 결합에서 선택자질의 차질에 의한 모순이 발생하면, pretty의 [-남성]자질이 ‘유약해진’등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논의를 유머로 돌아와서 생각해보자. 유머는 위와 같이 유사한 현저자질을 가지는 은유로 해석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오히려 그 자질이 더욱 대립적으로 나타나서 의미논리적으로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모순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에 유머로 해석을 하게된다. Raskin은 이런 경우를 순수한 의사 전달이라기 보다는 웃음이라는 특수한 효과를 내기 위한 다른 환경의 유머적 의사전달모드(non-bona-fide communication mode)를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17) 7:0으로 독일선수들에게 패배를 달성하였다

Со счётом семь-ноль наши ребята одержали поражение над своими немецким и друзьями.

17') одержать победу над кем-чем

17'') потерпеть поражение на чём

17)에서 우리 선수들이 독일선수와 7:0으로 패배를 달성했다는 표현에서 어휘범주와 엄밀하위범주규칙에는 차질이 없다. 그러나 선택자질 규칙(selectional rule)에 의해 одержать 는 [+승리]자질의 목적어를 요구하고 потерпеть는 [-승리]자질의 목적어를 요구한다. 역으로 побед는 одержать를 요구하고, поражение는 потерпеть를 요구한다. 이런 선택제약을 위반하면서 одержать가 함축하고 있는 [+승리]라는 전제가 поражению에 함축하고 있는 [-승리]의 전제에 의해서 기묘하게 대립되고 있다. 즉 의미적 전제를 부정하고 있어서 유머적 의사전달모드(non-bona-fide communication mdde)로 해석되어 진다. 여기에서 은유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전제의 강력한 대립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있다.

18) ‘예측할 수 없는 과거를 가진 대국’

Великая страна с непредсказуемым прошлым.

18)에서 밑줄부분은 어휘범주와 엄밀하위범주 규칙에는 차질이 없다. 그러나 непредсказуемое는 선택자질 규칙에 의해 [+미래]의 자질을 요구하는데 이런 규칙을 위반하고 [-미래]의 자질을 가지는 прошлое와 결합하고 있다. [+미래]라는 전제가 부정되고 있다. [+미래]와 [-미래]의 전제 자질이 대립하고 있다.

19) 류마티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따뜻하게 데운 똥을 사용하라는 충고를 그에게 해주었다... 그는 아침부터 매일 후라이팬에 똥을 데웠다. 후라이팬도 똥이 생태학적으로 청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쉐터(Cepter)를 샀다.

Ему посоветовали от ревматизма подогретьм навозом лечится... Он его с утра каждый день на сковороде подогревает. Сковороду специально купил “Цептер”, чтобы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й навоз был.(Задорнов 1997с, 165)

19)에서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й라는 표현에서 어휘범주와 엄밀하위범주규칙에는 차질이 없으나 선택자질 규칙에서 요구되는 [+깨끗함]이 결여된 ‘똥’이라는 명사가 결합되면서 앞의 ‘생태학적으로 깨끗한(экологический чистый)’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적 전제가 부정된다. [+깨끗함]과 [-깨끗함]의 자질이 대립되고 있다.

20) 요뇨법은 어때요? 민간에서는 쉽게 말해서 오줌요법이라고 해요. 그걸 마시고 눈과 귀에 넣고 위에서 붓고... 또 그것을 말려가면서... 또 부족하면 이웃집에 가서 빌리기도 해요.

-오줌 .좀 두 컵만 빌려주세요. 일 주일 후에 이자를 쳐서 갚을게요

А что с уринотерапией делается? В простонародье, извините, мочетерапией... Полстраны это дело пьёт, закапывает в глаза, в уши, поливает себя сверху, приговаривая... Выпаривает... Когда своей не хватает, у соседей занимают.

-Вы не одолжите нам пару стаканчиков? Мы вам через неделку вернём с процентами.(Задорнов 1997с, 165)

20)에서 오줌을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웃집에 가서 빌릴 때 사용하는 말 표현이 설탕을 빌릴 때 사용하는 표현과 동일하다. 문법적으로 어휘범주와 엄밀하위범주규칙에는 이상이 없으나 선택제약에서 пару стаканчиков에서 요구하는 것은 [+식품]의 자질이 요구된다. 여기에 오줌이라는 [-식품] 자질을 결합시키면서 의미적 전제가 부정된다. 오줌과 관련해서 [+식품]/ [-식품]의 전제가 대립되어 있다. 더욱이 Мы вам через неделку вернём с процентами라는 표현에서 이자를 쳐서 갚는 물건도 [+식품], [+돈], [+생필품] 등의 자질을 요구한다. 오줌은 [-식품], [-돈], [-생필품]의 자질을 가지므로 전제를 부정하게 되어서 전제가 서로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

21) 당신은 일이 안 풀린다. 당신에게서 기가 나갔어. 아침마다 전기콘센트에 키스를 해야된다.

А у вас дела не идут, потому что из вас энергия ушла. Вам надо по у трам целовать взасос электрическую резетку.(Задорнов 1997с, 164)

21)에서 기(氣)를 보충하기 위해 아침마다 전기 콘센트에 키스하라는 표현에서 어휘범주와 엄밀하위범주규칙은 차질이 없지만 целовать взасос는 선택제약에서 [+Animate]를 요구하는데 [-Animate]자질인 전기콘센트를 결합함으로써 동작과 동작대상 사이에 의미적 전제를 위반하게 된다. [+Animate]와 [-Animate]가 대립을 이룬다.

22) 정부의 손에 의해서 죽은 희생자 추모기념일

День памяти жертв, погибших от ру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Задорнов 1997b, 28)

22)의 ‘정부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추모기념일’이라는 표현에서도 어휘범주와 엄밀하위범주규칙은 차질이 없지만 погибших от руки ... 구문의 선택제약에서 요구되는 자질은 [+Enemy]이어야 한다. 적군에 의해서 희생된 용사들의 추모기념일이라는 의미적 전제가 적군 대신에 ‘정부’라는 [-Enemy]자질을 가진 어휘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다. 의미적으로 대립되는 [+적군]/[-적군]의 전제가 대립되고 있다.

23) 꼬마가 어린이 코미디프로를 보고나서 엄마에게 말한다:

-- 이젠 더 못 웃겠어. 난 웃음이 아프단 말이야.

Маленький мальчик на детском весёлом спектакле говорит маме:

--Я не могу больше смеяться. У меня болит улыбка.

23)의 ‘나는 웃음이 아프다’에서도 어휘범주와 엄밀하위범주 규칙은 차질이 없으나 선택제약에서 болит는 [+신체부위]를 요구하는데 [-신체부위]자질을 가진 улыбка가 공기(共起)함으로써 전제를 부정하고 있다.

앞의 17-23)의 예들에서 보았듯이 통사적인 유머의 형성에서 비정상성을 벗어나는 경우 어휘범주와 엄밀하위범주규칙을 위반하는 경우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유머를 형성하기 위해서 통사적 비정상성이 요구되더라도 의미론적 전제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립적인 의미가 전제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만큼은 문법적이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선택제약에서의 위배만을 허용하여 유머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문법규칙에서 적합하지만 비정상문으로서 의미적 전제를 부정하는 어휘의미적 유머를 분석하도록 한다.

### 3.6. 어휘의미적 유머의 분석

어휘의미적인 유머형성은 문법규칙이 적용되는 단계보다 더 표층적인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즉 문법 규칙의 3단계를 차질없이 통과하기는 하였지만 그 어휘형태가 가지는 대화상황에서 함의하고 있는 주변적이고 화용적인 의미로 말미암아 화용적 전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어휘범주, 엄밀하위범주 규칙 그리고 선택제약규칙에는 문제가 없지만, 어휘사용간 어휘속의 화용적 어휘의미로 말미암아 전제가 부정되거나 대립적 어휘의미가 공존하여 웃음을 유발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은유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심한 대립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Grice(1975) 대화의 격률(conversational maxims)을 위반하는 경우의 함축으로서 유머적 의도로 해석되어진다.

어휘의미 중에서 화용적 어휘의미는 어휘형성과 관련된 어휘형성론, 즉 조어론과 관련을 가진다. 이 경우 여러 가지 음성, 음운, 형태, 정자법 차원에서의 단어 비틀기, 말장난 방법 등이 해당된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획득된 어휘의 화용론적 의미는 문법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 참, 거짓의 문제와는 상관 없이 화용적 문맥적 전제와 관련된 의미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

24) 너 진지 안 먹었구나.



24)는 밥을 안 먹은 사람에게 말하면 참이 되는 문장이겠지만 ‘너 먹었구나’의 화계(speech level)가 요구하는 청자가 아랫사람이라는 화용론적 전제와 ‘진지’라는 청자가 윗사람이라야 사용하는 경어가 화용론적 전제를 부정하게 된다. 식사와 관련된 ‘의미영역’으로서 밥과 진지를 다음의 ‘의미성분’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의미성분/영역	밥	진지
음식	+	+
높임말	-	+

유머에서는 이같은 경우에 어휘의미를 형성하는 어휘형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가령 다음의 유머를 볼 수 있다.

25) 당신 부서에서 이번에 150 프로 초과달성 할 테여 말테여 ?

Вы там, в Вашем отделе, перевыполнить план на 150% Могёте или не можете? (Задорнов 1988, 55)

25)에서 ‘할 테여 말테여’(могёте или не могёте)라는 형태는 문법규칙을 통과하지만, 화용적 어휘의미에서 차질이 발생한다. 공식적인 대화환경에서 표준어가 아닌 ж--г 자음교체에서 일탈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수준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임을 함축하게 된다. 위 예문에서 회사의 대표로서 공식적이고 권위적인 환경에서 행하는 화자의 발화라는 화용적 전제가 부정되고 있다. 사장이면 당연히 일정한 수준의 교양을 갖춘 사람일 것이라는 [+공식적, +교양있는]의 자질이 비정상적인 어휘형태 속에 함축된 [-공식적, -교양있는] 자질에 의해서 대립되고 있다.

(음의 교체: 자음 바꾸기)

26) 여보세요? 안켈카야? 나야, 나. 미안해 큰 소리로 말을 못해. 나는 지금 불쇼이에서 전화하는 거거든. 뭐야? 내가 누군지 못 모르겠다고? 나야 나.

발토레나야. 아니야. 여긴 불쇼이 카지노가 아니고... 나는 지금 불쇼이 극장에서 전화하는 거야... 여기 관람석에 앉아서 전화하는 거야. 지금 관람 중이야.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하고 있어. 이 사람이 누구냐고? 까레로스라는 사람이야. 너는 이 사람에 대해 들어봤어? 못 들어봤다고? 뭐야? 수퍼급이야! 나도 처음에는 모델인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 스페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케너 오페라 가수야.

Алло? Анжелка? Это я... Извини, не могу громче говорить. Я тебе звоню из большого... Ты чего, Анжела, не узнала меня? Это ж я, Вальторена, Валька которая... Нет, я не из казино “Большого”, а из театра Большого. Я в партере сижу, спектакль смотрю. Известный очень поет... Этот, как его? Карьерос, вот! Слыхала про такого? Нет? Ну что ты? Супер! Я тоже думала сначала, что модельер. А оказалось -- испанец. Оперный этот -- кенор. (Задорно в 1997с, 119)

26)의 밑줄부분에서 케너(кенор)는 ‘테너(тенор)’라고 해야 할 것을 ‘케너’라고 한 것이다. 전체 맥락에서 신(新)러시아인인 화자는 불쇼이 극장에서 자신이 음악을 즐기는 교양있는 사람임을 드러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곧 ‘테너’를 ‘케너’라고 말하는 무지를 드러내게 된다. 문장의 비정상성에서 문법규칙에는 차질이 없으나 케너(кенор)라는 어휘가 가지는 화용적 의미를 통해서 함축된 [+무식함]이라는 자질이 전체 맥락의 전제인 [-무식함]의 자질과 대립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모국어화자들은 케너(кенор)가 테너(тенор)의 오류임을 바로 알아차린다. 이런 점에서 문법적인 오류문제가 아니라 어휘선택의 문제가 대두된다.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단어의 오류를 러시아인들은 원래 단어로 인지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к]와 [т]의 교체이외에 페너(фенор), 제너(зенор), 베너(венор)와 같이 다른 음으로 교체해도 마찬가지로 유머효과가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는 더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음의 교체: 순서 뒤바꾸기)

27) [고오기 (익은)]라는 메뉴판에 나온 음식입니다. 이게 뭐지? 이거 오자였나? 아니예요. 제대로 쓴거예요. 저거 좀 보세요. 제대로 쓰여 있지요. 이렇게 무슨 고기야? 이것은 ‘고기’가 아니라 유사하게 들리는 그런 ‘고오기’였

다. 그리고 또 [가알비(갈비)]에도 ‘갈비’가 아니라 ‘가알비’ 이런 식으로 씌여 있었다.

И ещё вот это блюдо, которое у тебя значитса в меню под названием [мясо жареное]. Что? Это опечатка? Нет, это не опечатка. Всё верно напечатано. Посмотри на него. Какое ж это мясо? Это мяся! Вон и дальше верно напечатано -- [говюжье]!(Задорнов 1997а, 35)

27)의 음식메뉴에서 마소(мясо 고기)의 오자로서 므샤오(мяся)는 문법규칙에서 차질없이 잘 통과했는데 알고보니 마소를 잘 못 쓴게 아니라 ‘모음 я’와 ‘자음с’를 바꿔서 단지 비슷하게 마소(мясо)처럼 적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전혀 고기가 아니라는 데서 고기라는 전체가 부정된다. [+ 고기]자질과 [-고기]자질이 대립하고 있다. ‘가뷰지에(говюжье)’도 같은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 가바지에(говяжье 갈비)가 아니라 비슷하게 적어 놓은 전혀 다른 메뉴로서 또 어떤 것을 내놓을지 웃음을 예상하게 하고 있다.

(임의조어)

28) 당신 덕분에 우리는 한 건을 ‘유티칠리’했어요. 나는 ‘유티치찌’가 하던 일의 목록에다가 체크표시를 하는 것인줄 처음에는 몰랐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항상 [당신에게 ‘아스파시비찌’하게 해주세요]하고 대답을 했다. 그는 웃지도 않았다. 아마도 상류층에서는 그렇게 말하나보다하고 생각을 했다. 그때부터 항상 ‘아스파시바에트’한다고 생각한다.

Благодаря вам мы оптичили ещё одно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знаться, я не сразу понял, что слово [оптичить] означает поставить за провед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голочку. Но ему на всякий случай ответил : [А вас разрешите оспасибить!] Он даже не улыбнулся. Наверное, подумал, что так сейчас говорят в номенклатурных кургах. Думаю, с тех пор сам оспасибает всех направо и налево.(Задорнов 1997а, 73)

28)의 유티칠리(оптичили)는 프티싸(птица)라는 명사에서 임의적으로 형성된 동사로서 ‘새가 날아가는 모양의 체크표시 ‘v’를 하다’라는 뜻이다. 목표량을 정해 놓고 그것이 달성되면 체크표시를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임의적으

로 형성된 ‘동사 유티칠리(оптичили)’에서 문법규칙은 차질이 없다. 그러나 날아가는 새(鳥)표시로 업무달성을 체크한다는 것에서 만들어진 자의적인 동사를 공식적인 상황에서도 사용한다는 것은 그 공식적인 상황의 전제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황이 전제하는 [+공식성]자질을 이러한 어휘의 [-공식성]자질이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감사를 나타내는 스파시보(спасибо)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만들어진 말 ‘아스파시비쨌(оспасибить)’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제의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

(정자법 실수)

29) 한 러시아 작가가 녹음기로 졸면서 러시아어를 공부했다. 지난 번 러시아작가 협회에서는 그를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시키지 않았다. 그가 협회가 입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썼기 때문이었다: [저가 자카혀폐에 드러가게 해주세요]. 그의 신청서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답신을 보냈다: [우리는 당신가튼 자카들은 무더메 싸아노아씨요.]

Там один русский писатель во сне под магнитофон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обучается. Его в прошлый раз в союз писателей не приняли за то, что в заявлении написал: [Прашу пренят мене в саюз пясателей]. Ему на этом заявлении в комиссии резолюцию наложили: [В грабу вязали мы таких пясателей!]

(Задорнов 1988, 192)

29) ‘Прошу принять меня в союз писателей.’

29)에서 ‘작가(писатель)지원자’라는 것이 함축하는 의미적 전제가 ‘저가 자카혀폐에 드러가게 해주세요(Прашу пренят мене в саюз пясателей)’라는 편지 속에서 함축되어 있는 화용적 의미, 즉 맞춤법조차도 모르는 수준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교양없는]의 자질에 의해 부정된다. 여기서 물론 러시아어 문법규칙은 차질이 없다. 작가협회의 답신도 작가라는 글쓰는 전문가 단체의 전제를 부정하고 하고 있다. [+교양있는]의 전제자질과 [-교양없는]의 자질이 대립하고 있다.

(외래어사용)

30) 경비인가요? 당신 어딴어요? 오케이! 이리로 오고 있어요? 오케이! 차는 출입구 중앙에 세울거예요? 오케이! 밑에서, 오케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내가 내려갈 때까지, 한 사람도 보내지 마세요, 오케이? 그런데 왜 말이 없어요? 내가 러시아어로 질문하고 있어요: 오케이예요 아니면 노 오케이예요?

Охрана ? Вы где? О'кей! Подъезжаете? О'кей! Машину поставьте у самого входа в подъезд, о'кей? Внизу, о'кей, драка, о'кей. И пока я буду спускаться, о'кей, никого не пускайте, о'кей? Что молчите? Я вас русским языком спрашиваю: о'кей или не о'кей?(Задорнов 1996, 32)

30)에서 영어의 오케이(o'кей)라는 말을 연이어 7번 이상을 사용한다. 그러면서 대답을 재촉한다. 대답을 안하자 러시아어로 말하는데 왜 대답을 못하느냐고 다그친다. 그러면서 다시 '오케이예요 아니면 노 오케이예요(o'кей или не о'кей)'라는 말을 한다. 오케이를 말끝마다 연발하는 맥락이 함축하는 전제가 '내가 러시아어로 질문하고 있어요(я вас русским языком спрашиваю)'에 의해서 부정되어진다. 연속적으로 [+영어]와 [-영어] 전제 자질이 대립하고 있다. 여기서 영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우스운 것이 아니라 전제가 부정되도록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조건(truth-conditional) 전제 부정의 어휘의미공존)

화용적 전제부정을 통한 어휘의미 생성과 달리 공존하는 어휘의미를 통해 진리조건적 전제를 부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동음이의어)

- 31) -- 당신이 화분을 메르세데스 차에다가 던졌어요?  
 -- 아니오, 우리는 요강을 사용하지 않아요.  
 -- Это вы бросили горшок на Мерседес?  
 -- Нет, мы горшками не пользуемся.(Задорнов 1996, 42)

31)에서 문제가 되는 가르쇼크(горшок)의 의미는 '화분'과 '환자용 소변기'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동음이의어이다. 대답에서 '사용하지 않다(не по

льзуемся)’의 선택제약에 만족하는 것은 ‘환자용 소변기’라는 뜻이다. 일단 선택제약을 만족하지만 그 어휘의미가 동음이의어로서 ‘화분’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의 전제를 부정하고 있다. [+화분]과 [-화분]의 자질이 대립하고 있다.

(속어적 동음이의어)

32) 우리는 온 나라를 속이고 있다.(속어: обмануть)

우리는 온 나라에 신발을 공급하고 있다.

Мы обуем всю страну!(У павильона [Обувь] в Лужниках в Москве, 90-годы) (Задорнов 1997b, 148)

32)에서 아부찌(обуть)는 ‘신발을 신기다’, ‘신발을 공급하다’라는 뜻이외에도 ‘속이다’라는 뜻이 있다. [+신발공급]이라는 전제를 [-신발공급]이라는 자질이 부정하고 있다.

(조작된 동음이의어)

33) 생선가게 가격표에 다음과 적혀 있었다: [생선은 신선냉동됨/상한 것을 얼려 놓았음]

На ценнике в рыбном магазине: [Рыба всежемороженая] (Задорнов 1997b, 127)

33') свежемороженая 신선냉동된

33") Все же мороженая 오래 동안 얼려서 겨우 냉동이 된(상한 생선을 얼린)

33)에서 Рыба всежемороженая는 발음상 Рыба все же мороженая와 유사하다. 이것은 분절하여 읽게 되면 원래 문장의 기준전제인 [+신선함]의 자질이 [-신선함]의 자질로 부정되어진다. [+신선함]과 [-신선함]의 자질이 대립되면서 좋은 물건임을 나타내려는 화자의 전제가 부정되고 오히려 나쁜 물건임을 알리는 말로 둔갑된다.

(조작된 동음이의어)

34) 유치원 들어 가기 전에는 탁아소를 다닌다./ 울화통은 여물통이다

Досада -- ясли. (Задорнов 1997b, 110)

34') до сада 유치원 들어가기 전

34") ясли 탁아소(여물통)

34''' '울화통은 유치원(여물통)이다'

34)에서 '유치원 들어가기 전'이라는 '다싸다(до сада)'를 붙여 써서 '울화통(досада)'이라는 말이 되었다. 잘못된 동음이의어가 되어서 기본전제 [+울화통]과 [-울화통(유치원 들어가기 전)]이 대립하고 있다. 아슬리(ясли)도 [+여물통]과 [-여물통(탁아소)]의 자질이 대립하고 있으면서 유머를 유발하고 있다.

(다의어)

35) 거리에 있는 화학공장 출입구 위에 다음과 같은 말이 써여 있었다: 조국  
이여, 황산을 받아 이용하라/ 복용하라

На улице над проходной химического завода: Принимай, родина, серную кислоту! (Задорнов 1997b, 153)

35') 조국이여, 우리가 만든 황산(H<sub>2</sub>SO<sub>4</sub>)을 먹어라!

35") 조국이여, 우리가 만든 황산(H<sub>2</sub>SO<sub>4</sub>)을 받아 이용하라!

황산 만드는 공장의 35)의 슬로건에서는 자기네 '제품을 받아서 사용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프리니마이(принимай)'가 '약을 먹다'라는 뜻도 있다. 이 경우 원래 의도인 '수령(受領)하다'라는 [+인수(引受)]의 자질이 [-인수]로서 '약을 먹어라'는 의미가 되어 기존의미의 전제를 부정하게 된다. [+인수]/[-인수]전제가 서로 대립한다.

(은어)

36) 내가 말하고 싶은게 뭐냐고? 나는 좀 단순한 사람이야. 학위(감옥)가 두 개야: 거기에 두 번 갔었지. 지금 3번째 시험기간이야. Я чё сказать хочу?

Я человек простой. Правда, двой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мею: два раза сидел. Сейчас уже третью сессию сдаю. (Задорнов 1997b, 125)

은어는 표면형태 어휘의미와 다르게 특정 사회계층에서 소통되는 어휘로서 표면형태 의미가 가지는 전제와 대립하면서 유머효과가 발생한다. 36)에서 ‘학위가 두 개’라는 말은 ‘두 번 감옥에 갔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제 ‘세 번째 시험기간’이라는 말로 현재 ‘세 번째 복역 중’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원생들간의 대화에서나 사용되는 용어들을 죄수들의 전과경력 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표면형태 의미가 전제하는 [+학위]의 자질을 부정하는 [-학위] 자질에 의해서 전제가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은어들은 돈(бабки 할머니), 지폐(капуста 배추), 열간이(лох 산란한 뒤의 여원 연어)(Задорнов 1997b, 125-129)등<sup>14)</sup>이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 사회계층에 상관없이 사용되는 신조어(неологизм) 구어체 어휘로 투소바싸(тусоваться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다)와 같은 어휘가 나타나고 있다 (Задорнов 1997b, 121).

####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종래 유머의 세 이론중 부조화모순이론을 의미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중연상이론의 지시프레임(referential frame)과 스크립트이론에서의 스크립트대립을 전제를 부정하는 대립된 의미의 변별자질로 설명하였다. 이중연상이론과 스크립트이론에서 보여진 유머구조의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 유머해석과 생성에 필요한 기본적 의미구조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의미론과 화용론, 통사론, 어휘의미론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유머 의미자질을 분석함으로써 유머가 의미적 현상임을 보였다. 특히 통사론 차원의 문법규칙적용을 통하여 유머가 어휘범주와 엄밀하위범주 차원에서는 적절

14) 범죄 세계에서 사용되는 다음 어휘들이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다. гнать пургу ‘속이다’, отмывать бабки ‘돈세탁하다’, базлан ‘논쟁’, госбабки ‘국고’, катить ‘비난하다’, шестёрка ‘말단부하’, шестировать ‘섬기다’, дед ‘두목’, кореш ‘동료’, шиз ‘미친 사람’ 등.



하지만 선택제약(selectional restriction)에서는 차질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유머가 유발하는 비정상성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과 이러한 비정상성이 유머적 의사전달모드를 형성하기 위한 논리생성에 가장 적합한 통사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통사적 일탈을 통해서 오히려 훌륭한 적격형의 의미를 생성하는 은유(metaphor)와 마찬가지로 유머해석의 규칙을 고려할 수 있다. 발화형태의 비정상적 일탈의 경우에 은유적 해석과 유머적 해석의 갈림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선택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은유적 해석에서와 같이 어휘의미자질이 현저자질로 전송(transfer)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대립자질로 남게 되는 경우가 유머에 해당한다. 이 경우 대립되는 의미자질이 전제를 부정하게 된다.

어휘의미론 차원에서 형성된 유머는 문법규칙 3단계에 모두 적합하지만 화계(speech level) 차원의 전제를 위반하면서 대립적 자질이 형성된다. 이러한 어휘들로는 조작된 말장난의 어휘와 여러 어휘의미가 공존하는 어휘로 나뉘어져 있다. 조작된 어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통사규칙에 적절한지가 문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머의 구조는 의미전제 부정이라는 의미·형식적 구조를 가지며 보편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자도르노프의 유머의 구조도 이 범주에 속하면서 대립의미 자질과 논리를 이용하여 화용론과 통사론, 어휘의미론, 어휘형성론 차원에서의 언어자료를 최적상태에서 구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도르노프 유머의 내용적 특성은 형식이 아니라 GTVH이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머의 상황(SI: situation), 담화전략(NS: narrative strategy) 그리고 유머의 대상(TA: target)을 분석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인용문헌

- 레빈슨 S.C.(S.C.Levinson). 『화용론』(Pragmatics 1983). 이익환, 권경원 역. 서울: 탑출판사. 1995.

- 베르그송(H. Bergson). 『웃음, 희극의 의미에 관한 시론』(Le rire. Essay sur la signification du comique. 1901). 김진성 역. 서울: 1997.
- 십재기, 이기용, 이정민. 『의미론서설』. 서울: 집문당. 1984.
- 안병팔. 「러시아유머(Комическое)의 형태-통사론적 분석--자도르노프(М.Задорнов)의 유머를 중심으로」. 『러시아문학』 제8집 서울: 한국러시아문학회. 1997a
- 안병팔. 「어휘론적으로 형성된 유머의 분석」. 『노어노문학』 제9권. 서울: 한국노어노문학회. 1997b
- 이익환. 『의미론개론』. 서울: 한신문화사. 1995.
- Задорнов, М. *Загадка голубой планеты. Не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Москва: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1988.
- \_\_\_\_\_. “Из записных книжек писателя-сатирик.” *Русский язык за рубежом* 1991-2..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м. А.С.Пушкина(1991): 39-45.
- \_\_\_\_\_. “Чи-чи-чи-пи,” *ЮНОСТЬ*(Литературный журнал), 92-3. (1992): 86-88.
- \_\_\_\_\_. *Кофточка. Весёлая пьеса для грустного кино*. Москва: Яуза. 1996.
- \_\_\_\_\_. *Великая страна с непредсказуемым прошлым*. Москва: Армада. 1997a.
- \_\_\_\_\_. *Задорники*. Москва: Армада. 1997b.
- \_\_\_\_\_. *Мы все из [Чи-Чи-Чи-Пи]*. Москва: Армада. 1997c.
- Исаева, А. *Можно ли научиться острить? Кухня смеха: из чего и как рождаются шутки, анекдоты, калламбуры, пародии*. Москва: СЕМЬЯ и ШКОЛА. 1996.
- Манатов, В. С. *Сатирко-юмористическая проза*. М: Сыктывкар. 1986.
- Attardo, S. *Linguistic Theory of Humor*.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1994.
- Attardo S. & Raskin V, “Script theory revisited: joke similarity and joke representation model,” *HUMOR*. 4:3-4.(1991): 293-347.
- Chomsky, N.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Mass:MIT Press. 1965
- Dahl, Ö. “Selectional Restriction,” In R.E. Asher(ed.),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New York-Oxford-Seoul-Tokyo:Pergamon. 1994.
- Eco, U. “Il comico e la regola,” *Alfabeta*. 21. 5-6. Rpt. in *Sette anni de desiderio*. Milan: Bompiani. 1983 2nd ed. 1986 pp.256-260 Tr. “The Comic and the Rule,” *In Travels in Hyperreality*. New York: Harcourt Brace. 1981
- Freud, S. *Der Witz und seine Beziehung zum Unbewussten*. Leibzig:Deuticke. 1905. English. Tr. *Jokes and Their Relation to the Unconscious*. New York: Norton. 1960.
- Grice, H.P. “Logic and Conversation,” In Peter Cole and Jerry Morgan (eds.) *Syntax*

- and Semantics*. Vol.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1975): 41-59.
- Keith-Spiegel, P. "Early conception of humor: varieties and issues," In Goldstein and McGhee (eds.) *The Psychology of Humor*. London-New York: Academic Press. 1972.
- Koestler, A. *The Act of Creation*. London: Hutchinson. 1964.
- Kreps, M.B. *MIXAIL ZOSCHENKO AS HUMORIST AND SATIRIST: A STRUCTURAL APPROAC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ley. 1981.
- McGhee, P. *Humor: Its Origin and Development*. San Francisco: Freeman. 1979.
- Morreall, J. *Taking laughter seriously*.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83.
- \_\_\_\_\_. *The Philosophy of laughter and Humor*.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87.
- Raskin, V. *Semantic Mechanisms of Humor*. Dordrecht-Boston-Lancaster: D. Reidel. 1985.
- \_\_\_\_\_. "Language and humor," In R.E. Asher(ed.),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New York-Oxford-Seoul-Tokyo: Pergamon. 1993.
- Searle, J.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Abstract]

**The semantic structure of the Russian humor in the works of  
Michael Zadornov**

Byung Pal Ahn  
(Seokyeong University)

In this article the structure of modern Russian humor is analyzed on the basis of some theories: bi-sociation theory (Koestler 1964), semantic script theory of verbal

humor, using the concept of semantic presupposition, pragmatic felicity condition (Searle 1969; Levinson 1983) and grammatical rules (Chomsky 1965).

Up to now the listed former theories were not examined and less analyzed by the semantic structure in the study of the structure of Russian humor(Исаева 1969; Задорнов 1991; 1992). Kreps (1981), who analyzed the works of Zoschenko, presented 21 types of humor, using the term 'humoreme' (Крепс 1981, 36-37). These types are the list of the available means of humor that work not in the base of semantic criteria, but in the base of means of literary rhetoric. Kreps presented types of humor means, such as contradiction, antonymic substitution, macaronic speech and correlation of humoremes in the various types of humor. Apart from Kreps, Manakov (Манакон 1986, 61-79) also studied these problems. He also set the system of the basic types of humor. Manakov introduced the linguistic means of humor of some Russian writers: Gogol, Tchechov. The means that Manakov showed with detailed examples, are trope, epithet, comic comparison, comic metaphor, comic periphrasis, euphemism, pun, zeugma, comic toponym, comic onomatopoeia, mania of foreign vocabulary, folk etymology, dialect etc. But these studies don't explain why these means make the works humorous. An, B.P. tried to answer this question (안병팔 1997 a; b). An B.P. explains contexts of humor through the Release theory, the Superiority theory and the Incongruity theory. An, B.P. explained the process of deviation from the grammatical norms through morpho-syntactic and lexical means. But in these studies the humor was not analyzed by the semantic criteria.

In order to linguistically evaluate various means of humor formation, it is necessary to elicit its deep structure, which makes it possible to research the formation and interpretation of humor.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being based on the Incongruity theory, defined the structure of humor as negation of presupposition. Of course the former traditional studies also well shared the concept of 'contradiction' and 'contrast' of humor structure, but they didn't explain the structure by semantic differential features. This study, analyzing the works of Zadornov, M., tried to note that through the negation of semantic presupposition the

structure of contradiction is formed with semantic differential features on the semantic, syntactic or lexical dimensions.

접 수 일 : 2004년 4월 29일

심사기간 : 2004년 5월 1일~20일

재 심 사 : 2004년 5월 30일

게재결정 : 2004년 6월 5일(편집위원회)